

정읍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시동

국책 연구소 등 브릿지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연구소 인프라 보강 방안 논의...바이오산업 발전 기여 기대

정읍시가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정읍시는 최근 김형우 부시장과 신정동 3대 국책 연구소 등의 핵심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브릿지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전 연구소 인프라 보강을 위한 선행 국가사업 유치에 대해 전략 방안이 논의됐다.

정읍시가 지정받아 조성코자하는 첨단의료복합 단지는 추가 조성부지 25만㎡를 포함 180만1000㎡에 30년간 1조7324억원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먼저 조성된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예산에 비해 40%만으로도 기존 연구소 인프라 등을 활용해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호남권에 공백상태인 바이오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이다.

정읍시 신정동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등 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원, (재)농축산용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 등의 우수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지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김형우 정읍시 부시장은 "용역을 성공적으로 준비해 내실있는 성과물로 반드시 관련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난 25일 정읍시청에서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브릿지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정읍시 제공>

서울서 고창까지 기차타고 즐기는 자연·문화



고창군이 코레일관광개발과 지역의 청정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열차 상품을 개발했다. 축제가 한창인 고창 정보리밭 전경. <고창군 제공>

군, 관광상품 개발 전통시장·읍성 등 방문...출시기념 이벤트도

고창군이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고창군은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감성 자극 고창 STORY 기차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밭도장터 관광열차'로 운영되는 이번 특별열차

여행상품은 오는 5월6일 서울역을 출발해 정읍역을 거친 후 고창에 도착하는 상품이다.

고창에 도착하면 고창전통시장에서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을 체험하고 고창읍성으로 이동해 절쪽꽃이 만개한 고창읍성을 돌며 답성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이어 천년고찰 선운사까지도

당일에 돌아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성됐다.

군은 여행상품 출시기념 이벤트로 고창사랑상품권 1만원을 탑승객에게 제공한다.

'감성 자극 고창 STORY' 기차여행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용료는 1인 7만9000원부터 시작한다.

군은 관광열차 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충무공 이순신' 호국정신 계승

오늘 충렬사에서 탄신 487주년 기념제

정읍충렬사보존회가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하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487주년 기념제가 충무공 탄신 기념일(4월28일)인 28일 오전11시 정읍 성황산 장군의 영정을 모신 충렬사에서 거행된다.

기념제에선 제관을 초헌관 김형우(정읍시부시

장), 아헌관 임장욱(태인향교 유도회장), 종헌관 호환호(고부향교 장의)가 맡게되며 이학수 정읍 시장과 고경운 정읍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충렬사 보존회원과 시민 등이 참석해 기념제를 지내게 된다.

충무공 이순신은 1589년 정읍현감으로 있을 당시 서해 유성룡의 추천으로 고부사리 첨사로 승진 이후 반포첨사·진도군수를 지내고 47세의 나이에 전라도수군절도사가 됐다.

조택수 충렬사보존회장은 "정읍에서의 충무공의 업적과 발자취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충무공께서 정읍현감 재직시 선정을 베풀 유덕을 기리고자 매년 탄신기념제를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성과'

1246 농가에 160t 공급...작물 생육촉진·비료 효율성 증대

정읍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2020년부터 친환경 유용미생물 7종(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클로렐라, BT균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46농가에 160t을 공급해 작물 생육촉진 및 품질향상, 비료 효율성 증대, 가축 장내 소화 흡수율 향상 등의 효과를 내 농가에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생물 4종은 비료로 등록되고, 3종은 보조사료 성분등록을 통해 농업용과 축산용으로 구분, 생산해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또 키오스크 도입으로 공급 절차 서비스를 개선하였고 중균관리, 생균수 측정 등 품질검사를 통하여 ㎡당 1억~10억마리의 고품질 미생물을 생산

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고추 등 발작물 정식 시기에 맞춰 퇴비와 혼합해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정식 시 뿌리 발근,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미생물을 살포해 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읍 관내 농가는 제2청사(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로 방문하여 활용방법 설명을 들은 후 원하는 미생물을 바로 수령해 갈 수 있으며 액상형태로 개별 파우치 포장된 5ℓ는 1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김원섭 정읍시 기술보급과장은 "관내 농업인들에게 고품질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농축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사진으로 보는 남원 불교미술 유적

남원향토박물관, 7월21일까지 '불교미술 유적 사진전'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내 향토박물관에서 오는 7월21일까지 '남원의 불교미술 유적 사진전'이 열린다.

이 전시회는 남원 지역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적 중 석탑을 대상으로 촬영된 20여점의 사진 자료를 선보인다.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유물·유적이 분포한 문화·예술의 땅 남원은 불교유적이 있어서도 각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불상과 석불상, 불교미술품 등이 산재해 있다.

2015년 불상 지정문화재 사진 전시회와 2021년 불교유적 석불상 사진 전시회에 이은 3번째 기획전인 이 전시회에서는 당시 소개되지 못했던 석탑과 승탑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통일신라 후기 '구산선문' 최초의 가람인 실상사에는 다수의 문화재가 집중돼 있고 국보인 '백자암 3층석탑'을 비롯해 실상사 보광전 앞 위치

한 석등, 2기의 삼층석탑, 수철화상능가보월탑, 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증각대사용료탑, 증각대사용료탑비, 실상사 승탑, 편운화상 부도 등의 사진의 전시된다.

이와 함께 용담사 7층석탑, 만복사지 5층석탑 등 남원의 대표적 석탑의 사진도 소개된다.

이 석탑들은 고대국가시대에 조성돼 현재까지 우리 곁에 보전돼 내려온 소중한 문화 유산들이자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로서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불교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경석 남원향토박물관 지방학예연구사는 "이번 사진 전시회는 쉽게 찾아가기 어려운 남원 각지의 불교유적 석탑과 승탑을 통해 불교문화를 좀 더 가까이 접해보고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